

## 국내경기는 5개월 만에 5개월 연속 개선

~ 주가상승과 설비투자가 뒷받침, 향후는 새 정권의 경제정책이 초점으로 ~

(조사대상 2만 5,111사, 유효회답 1만 427사, 회답율 41.5%,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5년 10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3.9로 5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한 주가상승을 계기로 설비투자 고조나 제조업체의 생산확대를 포함하여 폭넓은 업종으로 체감경기가 회복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일진일퇴(一進一退)를 반복하면서 완만히 회복기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조사개시이래 체감경기가 최고였던 『농·임·수산』이나 『제조』『부동산』 등 9개 업계에서 개선되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소규모기업」 모두 개선되어 2025년 최고수준이 되었다. 한편 「대기업」은 악화되어 중소기업과의 규모간격차는 약간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부동산·건설수요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였다.
- [이번달 토픽스] 농·임·수산 업계의 체감경기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는 농축산물 가격상승을 호재로 인식하는 목소리 등이 다수 들려왔다.



### < 2025년 10월의 동향 : 개선경향 >

2025년 10월의 경기 DI는 43.9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증가하였다. 2020년 10월 이래 5년 만에 5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한 주가상승을 계기로 폭넓은 업종에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10월은 낫케이 평균주가가 5만엔을 돌파해 연일 과거최고치를 갱신하여 환율은 대체로 150엔대로 추이하였다. 디지털 관련 설비투자의 유행은 강해 자동차 생산도 견조하였다. 게다가 농축산물 가격상승이 생산자 심리를 뒷받침하여 공공 공사 발주량도 플러스로 작용하였다. 한편 원재료나 물류에 드는 코스트 부담 증가 및 인력부족은 개선 추세를 약간 막는 요인이 되었다.

### < 향후의 전망 : 완만히 회복 >

향후는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가솔린 등의 잠정 세율 폐지 등 물가가 대책으로 의한 실질구매력 회복이 초점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여행 수요는 관련업종에 파급하여 반도체를 포함한 AI관련 설비투자도 순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정 확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및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환율 변동, 트럼프 관세의 영향에는 주시가 필요하다. 인력부족도 계속 무거운 과제일 것이다. 경기는 일진일퇴를 반복하면서도 완만한 회복 기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